

간편성·보안성 모두 잡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 ‘페이나우’



LG유플러스는 올초 모바일결제솔루션 ‘페이나우(Paynow)’를 공개했다. 최근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Fin Tech)’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많은 기업이 핀테크,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페이나우는 뛰어난 간편성과 보안성으로,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간편 결제 서비스로 평가된다.

액티브X(Active X)나 공인인증서 없이 최초 1회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자체 로그인 인증만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아이디(ID)도 필요 없고,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에 불과하다.

페이나우에는 우수한 보안기술이 포함됐다.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가 ID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또 거래



픽 인증, 안전패턴, 기기 본인인증, 가입자 인증모듈(USIM) 인증 등 다양한 지능형 인증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페이나우는 7개 신용카드를 비롯해 계좌이체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전국 10만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어 사용할 곳이 많다. 앞으

로 가맹점을 15만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간편한 결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통합 간편 결제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조선비즈 기자

고정관념 뒤집은 맛... 입소문만으로 성공한 허니버터



지난해 8월 출시된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은 출시 1달만에 매출 200억원을 달성해 제과업계의 ‘스테디 셀러(steady seller)’에 올랐다. 과자 상품은 월 매출 10억원만 기록해도 잘 팔린 축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니버터칩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파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허니버터칩은 별도 마케팅 없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상 입소문만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 등에 올린 후기와 댓글 등이 확산되면서 인기몰이가 시작됐다. 출시 3개월째인 11월 초에 1만1000개였던 인스타그램 관련 태그가 현재는 28만여 개에 달할 정도다.

허니버터칩의 성공비결은 ‘감자칩은



짭짤하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은 데 있다. 국산 아카시아 벌꿀에 일반 버터보다 맛과 향이 좋은 프랑스산 고메버터를 사용해 단맛과 고소한 맛은 높이고 짭짤한 맛이 주효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허니버터칩의 달

콤 고소한 맛은 1년 9개월 동안의 연구개발과 200종이 넘는 감자칩을 분석한 결과라며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비율을 찾기 위해 제품 출시전 1000명 가량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원석 조선비즈 기자

손상 피부 재생의 독보적 기술... 세계 최초로 WHO 등록



대용제약 관계사 디엔컴퍼니는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이지듀’(Easydew)를 보유한 회사다. ‘이지듀’는 피부과 기술을 받은 뒤 사용하거나, 붉은 피부나 건조한 피부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하는 다양한 상품라인을 가지고 있다. 인공 색소와 광물성 오일, 파라벤방부제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브랜드는 대용제약의 상피세포성장인자(EGF) 기술에서 나왔다. EGF를 법적 최대허용치(10ppm)까지 함유하고 있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한다. 피부 노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대용제약의 EGF 기술은 세계 최초로 ‘네펠더민(Nepidermin)’이라는 이름으



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됐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3개국에서 34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디엔컴퍼니 관계자는 “이지듀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 대상’을 차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이지듀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병원 전문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진 조선비즈 기자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 절개수술



달려라병원은 척추관절 전문병원 가운데는 드물게 비(非)수술적 치료를 더 강조한다. 척추와 관절 병원은 으레 수술을 하라고 권유할까봐 걱정하는 환자를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없애는 것이다. 대신 증상이 미미하거나 더는 진행되지 않은 환자에게 효과가 빠르고 안전성이 검증된 주사 치료, 운동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수술 치료 방식을 권장한다.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일직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불가피한 수술 환자에게는 손상 부위가 적은 최소 절개법을 시술한다. 통증이 적고 회복도 작을뿐 아니라 연고와 피부도 이프를 붙이면 수술 후에 관바라 사후도 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국가대표 치료경



력의 재활 전문 물리 치료사가 이끄는 스포츠 메디컬 센터에서 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재활법을 찾아 빠른 재활을 돕는다. 이 병원은 또 최근에는 의료 사고 관련 소식과 의료 차트의 한글화를 통해 환자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환자 사례를 나누는 토크쇼와 예비의사들에게 수술 노하우를 알려주는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이성우 원장은 “개원 당시부터 ‘쉬운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정확한 진단과 소통으로 올바른 질 높은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정보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법은 맛 없고 부실하다는 고정관념을 깨 식재료와 웰컴 음료를 제공해 병원을 환자들의 재충전 공간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박근태 조선비즈기자

개인 맞춤 상품 추천에 ‘음성검색’ 등 모바일 특화 서비스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옥션은 하루 평균 230만명이 이용한다. 옥션은 다양한 브랜드·상품·서비스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냈다. 옥션은 1998년 인터넷 경매사이트로 처음 문을 연 후 2004년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옥션은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급증하는 트렌드를 감안해 소비자 편의에 중점을 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의 구매 데이터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 상품 추천 기능을 도입했다. 옥션은 매일 새로운 상품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제공하는 ‘옥션 올킬 모바일’,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역경매 ‘잭팟’, 육아 단계별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베이비플러스’, 지역 신



선식품을 강화한 ‘모바일 마트 전용관’ 등 모바일에 특화된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였다.

이외 옥션은 판매자가 달라도 1회 배송비로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묶음 배송 ‘스마트 배송관’ 서비스

도 시작했다. 올 2월에는 구매내역 음성검색 서비스 ‘말하고 살자’를 내놓았다. 옥션은 조선비즈가 주최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2015’의 오픈마켓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상희 조선비즈 기자

단순·신속·편리한 금융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도



JB금융지주 계열의 JB우리캐피탈은 총 자산 규모 4조7410억원의 자동차금융 전문 여신회사다.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리스, 장기렌터카, 부동산금융, 개인신용대출, 기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2010년까지 대우자동차판매의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였다. 모기업인 대우자동차판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1년 9월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지난해 말 신규취임한 이동훈 JB우리캐피탈 사장은 올해 이익규모를 6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캐피탈 업계 2위로 부상하고, 2~3년 내로 자산규모를 6조~7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성,

신속성, 편리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확장에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속 성장 중인 JB우리캐피탈은 사회공헌활동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먼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특히 고졸 인턴사원제도를 통해 학력차별 폐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배려해 모든 고객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JB우리캐피탈은 최근 ‘웹접근성 우수 인증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JB우리캐피탈은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015’에서 자동차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허성준 조선비즈 기자



지속기간 2년... 4세대 필러, 美 FDA·유럽 CE 인증



주름 해결과 피부 재생, 각종 성형수술에 이용되는 필러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1980년대 등장한 1세대 필러는 콜라겐이 사용됐다. 콜라겐은 동물의 살과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광우병 우려로 사용이 제한됐다. 2세대 필러는 관절액과 연골, 피부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지속성이 1년 미만으로 짧고 콜라겐 생성능력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3세대 필러는 칼슘을 이용하는데 지속기간이 2년으로 길지만, 한번 주입하면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발견됐다. 4세대 필러는 PCL(Poly-caprolactone) 성분이며, 기존 필러들의 장점을 모두 포함했다. 안전하면서도 지속 기간을 2년까지 늘렸다. JW중외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에 출

시한 ‘엘란세’는 바로 4세대 필러에 속한다. PCL 성분은 의료용 고분자 물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CE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PCL은 앞 세대 필러들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콜라겐 생성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름 개선 효과뿐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전체 볼륨을 유지하면서 가수분해를 통해 체내의 물과 이산화탄소를 완벽하게 분해 흡수해 안전성이 높다. JW중외제약은 ‘엘란세’를 출시하고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필러 분야 단일품목 최초 최단기간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0년에는 미국 시장조사 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선정한 ‘올해의 기술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박근태 조선비즈기자



초미세 먼지보다 125배 작은 먼지까지 없애는 강력 필터



LG전자의 공기청정기는 공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앞선 기술로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강력한 필터 장착으로 뛰어난 공기 청정 능력과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LG전자 공기청정기의 강점이다.

‘알프스’ 공기청정기는 황사와 초미세 먼지를 제거하는 초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해 공기청정 성능을 강화했다. 지름이 2.5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보다 125배 작은 0.02μm 크기의 먼지까지 없애고 특수 코팅 필터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제거한다. 하이브리드 파워 필터는 집안 냄새의 주범인 생활 3대 가스인 초산, 암모니아, 아세트 알데

히드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을 걸러낸다. 깨끗해진 공기는 강력한 토네이도 터보팬을 통해 더 멀리 전달돼 집안 곳곳을 상쾌하게 해준다.

원형 디자인은 사각형 일색인 시중 공기청정기 제품 중 단연 돋보인다. 기다란 원통형 구조로 된 알프스 공기청정기는 버튼 조작부가 허리 부근까지 높이 올라와 사용자가 허리를 숙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체공학적인 허리 맞춤 디자인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결과다. 청정도 표시 라이팅 기능은 4단계로 공기 오염 상태를 알려준다. 김남희 조선비즈 기자

